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16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55.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함께
----------------	----------------------	-----

♠ 공동기도	다함께
--------------	-----

하나님, 편한 길과 반쪽 짜리 진리에 만족하며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얇은 물가에서 서성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의가 가뭇없이 사라지고 있는 세상에 살면서도 분노할 줄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정의와 자유와 평화의 새 세상을 여시려는 주님의 꿈을 우리도 꾸게 해주십시오.

이런저런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웃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꺼이 손을 내밀어 세상의 고통을 어루만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믿음의 반대말은 절망이라 배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름다운 세상의 꿈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고후4:6	인도자
----------------	-------------	-----

♠ 교 독 문	25. 시편103편	다함께
---------------	------------------	-----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	----------------------	-----

대표기도	I. 권미정 집사 II. 구성실 장로
------------	----------------------

응 답 송	찬양대
-------------	-----

찬 송	358. 아침 해가 돌을 때	다함께
-----------	-----------------------	-----

성경봉독	I. 마5:17-20	인도자
------------	-------------------	-----

II. 막4:26-29	조문규 집사
--------------------	--------

찬 양	찬양대
-----------	-----

말 씬	I. 우리가 들어온 것들	김재흥 목사
-----------	---------------------	--------

II. 속에서 자라는 생명	김기석 목사
----------------------	--------

거듭기도	다함께
------------	-----

- 현신의 찬송 370. 어둔 밤 쉬 되리니 다함께
- 헌금봉헌 다함께
-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겉보기에 근사한 사람이 아니라, 속이 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안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향기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현실이 아무리 힘겨워도 이제는 한숨을 거두겠습니다. 잿빛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땀흘리겠습니다. 주님의 명예를 메고 주님께 배우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지쳐 낙심할 때마다 환한 빛으로 우리 앞길을 밝혀주십시오. 아멘.

-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9월 동호회	성서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아름답도다, 형제자매의 사랑!	기도 : 조항미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장영숙 전도사 김기석 목사	이명희 집사 윤석철 장로	인도자 연태호 청년

9월	영접위원	한완식	하현철	조문규	강순배	최성애	진정숙
	헌금위원	조병무	김중수	김정길	송양진	허정윤	이순정

작은 벌레에 담긴 거대한 우주의 생명

--송아지야 밭지 마라 뜰에 있는 달팽이를

작은 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시는 많은 시인들의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름 모를 화초나 작은 벌레의 생명조차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은, 그 시인들이 한결같이 작은 벌레나 식물 안에도 우주의 큰 생명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똥판지같은 소리를 한다며 비웃거나, 그러한 발상은 종교 이전의 애니미즘(animism)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경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맡기 암 선고를 받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환자라고 가정해 보자. 그때 당신은 자신이 지금까지 현대를 사는 인간으로서 경멸해 온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생각은 더욱 발전하여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이 그들 나름의 생명의 찬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자신을 압박하며 다가오는 죽음을 통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뜰에 있는 달팽이나 울타리에 핀 작은 꽃, 참새 한 마리도 저마다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당신이 죽은 후에 돌아가게 될 우주의 생명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인간성의 상실과 함께, 기능 제일주의, 과학적 합리주의로 모든 것을 해명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대한 반성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가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장식이나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다. 우리들의 심층 심리 안에는 현대가 잃어버린 또 하나의 우주의 생명감을 작은 정원수나 꽃, 새를 통해 느끼고 싶다는 욕구가 숨겨져 있다.

현대인들의 심리의 밑바닥에는 역시 우리 생명의 표현인 꽃이나 새를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근본에 깔려 있는 자연관이자 우주관이며 시대가 변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기능 제일주의가 없애려 할 때 우리는 고독해지고 스트

레스를 받게 된다. 좋은 의미에서의 애니미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생활 속에서 되찾아야 한다.

우주의 은밀한 목소리

나는 예전에 성심여자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적이 있는데 그때 가르친 적이 있는 한 제자에게 2년 전부터 다도를 배우게 되었다. 그녀는 지금 심신의 품격을 두루 갖춘 훌륭한 다도 스승이 되어 있다. 다실(茶室)에서 나는 그녀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그리 훌륭한 제자가 못되어 거창한 말을 할 입장은 아니지만, 내가 다도에서 제일 매력을 느낀 것은 ‘침묵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다.

다실에서는 모든 것이 긴장된 정적 상태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그 정적은 아무 것도 없는 무(無)의 공허한 적막감이 아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무언이지만 우주가 은밀하게 말을 건네 오는 것을 접할 수 있는 고요함이며, 우리는 그 말을 귀담아 듣기 위해 적막한 다실에 앉아 있는 것이다.

이 생각을 글을 쓰는 작가인 나에게는 좀더 각별한 의미가 있다. 소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나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대답을 해왔는데, 이제 내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소설이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건 속에서 우주의 은밀한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이다.”

이 세상의 온갖 사건이란 다실의 다기나 차 도구와 같이 청결하고 아름다운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인간의 행위와 마음속 깊은 곳에도 사실은 우주의 은밀한 속삭임이 들리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추악한 마음과 행위, 그리고 그 더러움 속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나의 큰 관심사이다.

다실의 정적 속에서 우주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다인(茶人)이라면, 소설가는 마치 도박판과도 같이 소란스러움으로 가득 찬 인간 세상 속에서 우주의 은밀한 속삭임을 듣고자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

--엔도 슈사쿠, <<엔도 슈사쿠의 인생론: 회상>>

꽃 지는 날

도중환

슬프지만 꽃은 집니다
흐르는 강물에 실려 아름답던 날은 가고
바람 불어 우리 살에도 소리 없이 금이 갑니다
사시사철 푸른 나무로 살고자 하던 그대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대에게 꽃 지는 날이
찾아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대 이기고 지고 또 지기 바랍니다
햇살로 충만한 날이 영원하지 않듯이
절망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지를 하늘로 당차게 뻗는 날만이 아니라
모진 바람에 가지가 꺾이고
찢겨진 꽃들로 처참하던 날들이
당신을 더욱 깊게 할 것입니다
슬프지만 피었던 꽃은 반드시 집니다
그러나 상처와 아픔도 아름다운 삶의 일부입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춘려 윤정덕 구성실 방문성 박해경 배근수 김금순 방민이예정
 안정숙 윤수진 이인웅 이광용 형인순 임원민 임수연 조문규 진정숙
 권미숙 최종미 윤미경

월정헌금:

김성자 김정섭 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박어진 권혁순 박해경
 박준희 이기분 김송임 회유증희 이재문 윤성종 김윤정 이갑재 이재구
 황선희 전영자 황경순 김남중 오복순

감사헌금:

장영숙 김중수 이창영 강부미 조관행 홍선희 박남순 정현창 고재중
 오정숙 무명2

캄보디아우물헌금: 김철수 유영남 권혁순 박해경 황지현

100주년 기념 감사헌금:

김춘려 오진훈 노순옥 박석희 조항미 강순배 박영희 이영순
 (누계 : 96,770,000원)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장혜숙	장혜숙	염순님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김미순	노순옥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정복순	이소순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박경선	곽혜자
갈릴리	안정숙	박애순	문금석	조병주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김춘려	박홍재
시온	박효선	허정윤	홍복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이기분	이갑재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김금순	이봉옥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최종원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안홍숙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백혜숙	교회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김혜권	송양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박미영	야외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조항미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기독교교육진흥주일** : 기독교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 **동호회** : 오늘 오후 2시부터 9월 동호회로 모입니다.
3. **아름다운원로모임** : 19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모입니다.
4. **새 책** : 김기석 목사가 기독교사상에 연재했던 글을 모아 <같은 사람에게로 향한다>(청림출판사)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5. **신앙실천** : 9월 22일은 차 없이 지내는 날입니다.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나사렛 속

토요봉사(22일) : 박애순 홍복선

* 캄보디아 우물 기부 신청자 : 전영자 (생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